

## 종교개혁과 칼빈의 교육

- 개혁을 위한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

신 현 광

(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 루터(Martin Luther)라고 한다면 칼빈(John Calvin)은 그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개혁자들이 그러하듯이 개혁의 주요한 수단으로 교육적인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칼빈은 어떤 개혁자들보다도 이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 칼빈의 방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혁의 방법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존 칼빈(John Calvin; Jean Cauvin)은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의 북쪽 피카르디(Picardy) 지방의 느와용(Noyon)에서 제라르 코뱅(Gerard Cauvin)과 그리고 성공한 여관업자의 딸인 잔느 르 프랑(Jeanne Le Franc)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sup>1)</sup> 느와용에서 그의 아버지 제라르는 주교의 재정대리인 겸 비서로 일했다. 칼빈은 교회에서 일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불과 12세 때에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에 의해 느와용 대성당에서 성직을 얻게 되었다. 1523년에 그는 파리 대학교에 진학했다. 거기서 그는 4년 동안 라틴어, 논리학 및 철학을 공부했다.<sup>2)</sup> 이 시기에 칼빈은 그의 본명을 라틴화하여 Johannes Calvinus라 하였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고쳐서 Calvin이라

1) 기독교대사전, "칼빈"(서울: 기독교문사, 1990), p.1104.

2) 기독교대사전, "칼빈주의", op.cit., p.1109.

하였다.<sup>3)</sup> 몽테규(Montaigu)대학<sup>4)</sup>을 졸업한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시 철학 공부를 그만 두고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파리를 떠나 1528년 오를레앙으로 갔으며 다음에는 부르쾨로 가서 열심히 그의 새 공부에 전념했다. 그가 파리에 있을 때, 당시 유포되고 있던 새 교리들을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후에 와서 비로소 많은 정신적 투쟁을 거친 후 그가 말한대로(시편 주석 서문) '갑작스러운 회심'에 의해 순종하고 배우려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다.<sup>5)</sup> 부친이 사망하자(1531) 칼빈은 고전들과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파리로 되돌아갔다. 종교개혁에 대한 그의 관심과 그의 갑작스러운 개종은 파리에서 그가 종교개혁론을 설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박해를 피하여 칼빈은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하였다. 1536년 그는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완성했는데 이 책은 종교개혁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sup>6)</sup> 그 외에도 여러 영역에 걸쳐 그의 개혁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칼빈의 종교개혁을 그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목회활동을 통한 교육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저술을 통한 교육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에 대하여 살펴 보면서 칼빈의 개혁을 위한 교육활동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목회를 통한 교육 활동

### 1. 설교를 통해 본 칼빈의 교육 활동

1536년 제1차 제네바 목회를 시작할 때 칼빈은 단지 화렐(Farel)의 조수로서, 그리고 성경 교사로 초빙을 받았다. 화렐의 강권에 의하여

3)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13.

4) 이 대학은 유명한 네델란드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 프랑수아인 저작자 라블레, 그리고 후에 예수회 설립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도 공부한 바 있는 엄격한 대학이었다.

5) 기독교대사전, "칼빈주의" op.cit., p.1109.

6) Elmer L. Towns, "John Calvin,"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엘머 L. 타운즈 편, 임영금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p.249.

제네바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된 칼빈은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였다. 그는 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만 제네바 시의 교육 문제에만 관계하였다. 그리고 정식으로 목사가 된 칼빈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였다. 성경의 계속된 강해가 곧 그의 설교였다.

칼빈에 의하면 설교는 항상 성경에 적합하게 결부되어 있어야 하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성경의 주해이어야 한다. 그는 많은 초대 교부들의 예를 따라 매주일, 혹은 매일 성경의 전권을 한 권씩 차례로 설교해 나갔다.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 성 삐에르 교회에서 첫 주일을 맞이할 때, 칼빈은 지난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당할 때 멈추었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강해 설교를 차분히 시작하였다.<sup>7)</sup>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칼빈이 그의 설교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를 알 수 있다.

칼빈은 주로 성 삐에르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주일 아침과 오후, 평일에는 월, 수, 금요일에 설교하고, 주일 낮에는 신앙교육서로 가르쳤다. 주일 아침에는 신약울, 주일 오후에는 시편울, 월, 수, 금요일에는 구약울 강해했다.<sup>8)</sup> 이렇게 매일 설교로 '교훈받고, 훈계받고, 권면받고, 책망받은' 제네바 시민들은 초대 교부 시대 이후로 유럽의 어느 회중도 받지 못했던 기독교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sup>9)</sup>

## 2. 목회 지침서들을 통해 본 칼빈의 교육 활동

제네바 교회에서 의회 문서들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들에는 대체로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례>(Articl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 1537),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 1536), <교회 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순회 규칙>(Order of Visitation of the Country Churches, 1546), 그리고 <교회의 감독을 위한 법률>

7) T. H. L. Parker,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p.186-187.

8)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72), p.36.

9) Parker, op.cit., p.189.

(Ordinances for the Supervision of Church in the Country, 1547)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례>(Articl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 1537)

제네바 시 목사회의 정식 회원이 된 칼빈은 화렐과 함께 제네바시의 개혁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의 제네바는 비록 헌법상으로는 복음주의 도시가 되었지만<sup>10)</sup> 복주의적 신앙이 제네바 시에서 설교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도 많은 로마 카톨릭이 남아 있었다. 한 마디로 당시의 제네바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개혁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고 신자의 훈련을 엄격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1537년 1월 16일에 화렐과 함께 시의회에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례>(Articl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 1537)를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크게 권징을 통한 훈련, 시편의 찬송, 자녀의 교육 문제, 혼인 등 네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이 문서는 칼빈의 개혁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 강하게 제시되어 있다. 먼저 권징을 통한 훈련에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교회생활 질서를 확립하고 그들을 복음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며, 신앙고백을 제출하여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지키겠다고 서명하도록 할 것과 거부하는 자들은 출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sup>11)</sup>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되어 왔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칼빈은 세 번째 조례에서 자녀의 교육 문제를 다루었다. 칼빈은 어린이들도 역시 교회에 대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성경은 신앙과 고백을 결부시키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10) Ibid., p.128.

11) Ibid., pp.138-139.

것이 옳다고 말한다. 만일 이 규례가 언제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시 제네바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전연 용납되어 질 수 없는 미개성과 무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을 작성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일 년의 일정한 절기에 목사 앞에 나와 문답을 하고 시험을 받으므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부모들을 명하여 인내와 권면으로 저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요약들을 배우게 하며 지정된 시기에 목사들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sup>12)</sup>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이 곧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A Brief and Simple Summary of the Christian Faith)이다.

## 2)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 1536)

21개조로 구성된 이 고백서는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이 지킬 것을 서약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1536년 11월 10일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당시의 제네바 시는 비록 헌법상으로는 복음주의 도시가 되었지만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고, 복음주의 신앙은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시민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주의적인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 고백서를 지킬 것을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서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또한 어린이들도 교회의 동등한 회원으로 보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교육과 훈계로서 지

---

12)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with Instruction and Notes by J. 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XXII(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proposed by the Ministers at the Council, January 16, 1537," p.54.

도해야 하며, 신자들 사이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징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고백서는 올바른 신앙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하려는 칼빈의 노력과, 시민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통일시킴으로써 정치적인 통일을 가져오려는 그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3) <교회 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1541년 9월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칼빈은 새로운 기본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제네바에서의 그의 표어는 '자유, 질서, 훈련'이었다.<sup>13)</sup> 질서있는 교회의 건설을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교회 헌법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11월 20일에 <교회 헌법>이 법으로 통과되었다. 교회에서는 삶 전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법은 비록 목회적 기능으로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직분에 관한 언급이었다. 질서 정연한 교회에는 목사(pasteurs), 교사(docteurs), 장로(anciens), 집사(diacres) 등 네 가지 직분이 있다.<sup>14)</sup>

첫째로, 이 헌법은 목사의 우선적인 직무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

13)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p.42.

14) Parker, op.cit., pp.172-173. 이 법규는 제네바 교회의 네 직분, 즉 (1)가르치는 교사(박사)들, (2)설교하는 목사들, (3)치리하는 장로들, (4)자선의 관리를 맡은 집사 등을 세웠다. 교사(박사)들은 동시대의 문헌학과 신학의 최신의 자료들을 모두 사용하여 성경을 원어로,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었다. 목사들은 그 도시의 교구 교회들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 하도록 되어 있었다. 바로 목회 직분에는 두 종류, 즉 목사와 교사(박사)가 있다. 목사는 개교회에서 실행되는 전체 직분, 말씀, 성례, 권징의 사역을 하며, 교사(박사)는 교육하는 일만 한다(Inst., vi.3.4.). 장로들은 일반 주민이 이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신앙과 행동의 지침으로 활용하는지 주목하도록 되어 있었다. 칼빈은 장로들을 "감독(목사)들과 연합하여 책망하고 권징하는 일을 위해 교인들로부터 선택된 연장자로 생각한다"고 하였다(Inst., vi.3.4.). 집사들은 자선을 위해 지정되는 기금을 모금하고 보존하며, 그것들을 모아 고아, 과부, 노인 및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사회적인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칼빈 자신이 목사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날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옳게 이해시키고자 함에 있었다.<sup>16)</sup> 목사는 목사들의 모임에서의 선거와 회의의 비준에 의해 성직에 취임한다. 목사들은 또 성경연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 주기 위해 일년에 네 번씩 모여야 한다. 신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교육시키기 위해 칼빈은 교회의 직분에 교사의 직분을 포함시켰다. 신학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언어학과 인문학이 필요했기에 이 학문은 가르치기 위해 남학교와 별도의 여학교에 학교 선생과 보조 교사들이 임명되어야 했다. 이 교사와 보조 교사들은 상당한 교육을 거친 자라야 했고, 가르치는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회 훈련과 교육의 주체로서, 엄밀한 시험을 통과한 후 목사의 재가를 받아야 임명되었다.<sup>17)</sup> 교사의 직분에 대해 울리히(Robert Ulic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은 교육을 영적인 질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임명에는 목사의 동의가 따라야 했다. 학교는 무지함이나 거짓된 교리에 의하여 복음의 순수함과 교리의 건전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는 배움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sup>18)</sup>

둘째로, 이 헌법은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목사와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sup>19)</sup> 즉 학교의 건립은 성직자의 양성과 건전한 시민의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15) Ibid., p.184.

16) Peter Y. De Yong, "기독교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김득룡 역, 「신학지남」 147권 (1969.12.), p.48.

1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서울: 신교출판사, 1959), p. 54.

18) Robert Ulich,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p.123.

19) John Calvin, op.cit., p.63.

셋째로, 이 헌법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서를 통해 요리문답을 교육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매 주일 정오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요리문답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엄숙히 고백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위의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어린이 교육을 포함한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였던 신본주의적 교육실천가였음을 알 수 있다.

### III. 저술을 통한 교육 활동

칼빈은 일생 동안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는 그의 가장 훌륭한 저서이자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의 대전인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및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서>(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칼빈은 콕(Nicholas Cop)의 파리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문 사건으로 인해 파리에서부터 망명의 길을 떠나 칼빈은 바젤에 도착하였다. 그의 연설문은 복음주의적 정신을 대담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젤에서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유혹자라고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난당하는 복음전도자들의 참된 교리를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기 위해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쓰기 시작했다.<sup>20)</sup> <기독교강요>의 초판은 1536년 3월에 바젤의 출판사에서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이 초판은 일종의 교리문답을 확장해 놓은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상되었고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적인 교리들을 정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었다. 또한 이 책에는 그가 거릿된 것이라고 본 성례들을 비판한 첨가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다. 칼빈은 이 저작으로 인해 곧 프로테스탄트주의의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제1장 율법, 제2장 신조, 제3장 주

20) Jean Cu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  
이 길들인 사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73.



기도, 제4장 성례, 제5장 거짓된 성례, 제6장 기독교자의 자유 등 6장으로 되었다. 제2판도 라틴어로 쓰여 1539년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되었다. 내용은 초판의 제1장을 1장과 2장으로 나누고, 제 2장은 회개, 신앙, 칭의, 예정, 섭리의 각 장으로 나눔으로서 11장으로 확대하였다. 2판은 1541년에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제3판도 라틴어로 쓰여 1543년에 출판되고 불어 번역은 1545년에 출판되었다. 내용은 제2판에 맹세, 인간의 전망, 교회 권한, 교회 조직 등 4장을 증보하여 합 21장이 되었다. 제4판 라틴어 판은 1550년, 불어 번역판은 1551년에 출판되었다.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숭배, 형상 숭배에 관한 것을 논박하고 인간 양심을 해설한 것이 증보되었다. 제5판 라틴어 판은 1559년, 불어 번역판은 1560년에 출판되었는데 그의 필생의 결정판이다. 결정판은 전 4권, 전 80장이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 제2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로서의 신지식, 제 3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제4권은 교회, 은혜의 방편, 국가 정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결정판은 영원한 기념판으로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대전(神學的 大典)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이처럼 방대한 저서를 칼빈이 저술한 목적은 이 저서의 첫 머리에 칼빈이 기록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폐하시여! 내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후에 폐하게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의도한 바는 다만 기초적인 원리들을 약간 기술하여 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특질이 무엇인가 함을 배우게 하려는 데 있었나이다. 그리고 이 책은 주로 나의 동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썼사온데, 그들 중에는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심히 많사오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는 극히 적은 것을 알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붓을 든 의도라는 것은 이 책 자체가 증명하는 대로, 그 내용이 단순한 방법과 아무 수식이 없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나이다. 그러나 폐하의 나라의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목회지침서들의 작성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제네바의 교

21) 이근삼, op.cit., pp. 46-48.

에서 어떤 사악한 자들의 광포함이 극도에 달하여, 이 나라에서는 건전한 교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나의 지식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며, 나의 신앙 고백을 폐하께 보여 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의 노력은 유용하게 바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폐하께서는 현재 불과 검으로 나라를 소란케 하고 있는 그 광인들에게 광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교리의 성질이 무엇임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나이다."<sup>22)</sup>

여기서 칼빈의 저술 목적이 두 가지임을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그 둘째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중요함을 볼 수 있다. 이 첫째 목적은 역시 이 저술의 첫 머리에 있는 '독자에게 드리는 글 - 존 칼빈'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본서에서 내가 목적인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개요를 개진하였고 또 그러한 순서대로 그것을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에 포함된 내용을 어떤 목표에 귀착시켜야 하는가를 결정짓는데 어떠한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3)</sup>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이 기독교를 탐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본서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서>(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어린이 교육을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 후 며칠만에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여 1541년 11월말에 발간하였고, 헌정사를 포함한 라틴어 판을 1545년에 발간하였다.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서의 전신은 1537년 칼빈이 작성한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

22) Inst.,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p.9.

23) Inst., "John Calvin to the Reader," pp.3-4.

이라는 소책자였다. 칼빈은 제1차 제네바 목회시기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 책자를 작성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정기적으로 목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537년의 것은 문답식이 아닌 발제의 형식으로 되었고, 율법, 신앙, 기도, 세례, 성만찬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sup>24)</sup> 그는 자신이 썼던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다. 1542년에 출판된 약 58페이지 가량의 그 개정판은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 식으로 되었고, 그 순서도 신앙(믿음), 율법(십계명),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전들을 다루고 있다.<sup>25)</sup>

이 신앙교육서는 55단원으로 나뉘어져 55주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총 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다. 이 문답서는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을 뛰어나게 설명하는 하나의 해설서이고 교리서이며, 또한 어린이보다는 청년들의 지적 수준에 적응된 하나의 교육적 저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sup>26)</sup>

이 신앙교육서의 서두에서 칼빈은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앎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를 포함한 경건의 앎이다.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 곧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저술 활동을 통해서 칼빈이 보여준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그의 노력, 그리고 목사와 아동 간의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화식 교육 방법과 그 교육 목적 등을 살펴보면서 저술 활동을 통한 칼빈의 교육적 관심을 살펴보았다.

24) Jean Cudier., op.cit., p.32.

25)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tr. by H. Beveridge, Tracts and Treatises, vol.2(Grand Rapids: Eerdmans, 1958), p.35.

26) Cudier, op.cit., p.34.

#### IV.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제1차 제네바 목회 시기부터 칼빈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 건립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성직자 층의 조력자들의 부재와, 대체적으로 교육의 초보적인 것들은 물론 기독교 사상도 모르는 일반 대중에 직면하게 되었다. 칼빈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여겼고, 그런 지식을 나누어주는 데는 교육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깨달았다. 1536년 5월 21일, 제네바 시민에게 칼빈은 가난한 이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고 모든 어린이가 다니야 할 학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헌법을 제안했다. 그 결과 College de la Rive가 설립되었다. 읽기, 쓰기, 산수, 문법, 그리고 종교를 가르치는 것에 덧붙여, 그 학교 교장인 기욤 화렐(Guillaume Farel), 그리고 칼빈은 각각 구약과 신약에 관하여 날마다 강의해야 했다.<sup>27)</sup>

1538년 1월 12일에 칼빈은 코디에(Cordier)와 사우니에(Saunier)와 함께 제네바의 공립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 -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Plan for the School of Geneva: Genevae Ordo et Ratio Docendi in Gymnasio) - 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의 요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고, 인문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문학과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둘째로, 제네바의 학교는 성직자를 위한 준비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비단 교직자의 양성 뿐 아니라 시민 교육을 중시하였다.<sup>28)</sup>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에 칼빈은 스트룸(Strum)으로부터 학교 건립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다. 1556년이 스트라스부르크 방문 중에서도 학교 건립에 관한 많은 영감과 예증을 얻었다.<sup>29)</sup> 1541년 제

27) J.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New York: Oxford University, 1954), p.135.

28) 이 문서는 A. L. Heminjard의 9권으로 된 책 *Correspondance des Reformateurs* (Geneva, 1866-97)의 제4권 pp.455-460에 수록되어 있다.

29) J.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p.198.

네바에 돌아오자마자 칼빈은 학교 건립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교회 헌법>에서도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 건립의 계획은 계속 지연되다가 1558년 1월에야 동의를 받게 되었고, 1559년 6월 5일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개원식에서 베자는, 학원에 근무하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것만을 위해서라거나, 더욱이 옛 희랍인들이 자기들의 김나지움에서 그랬듯듯이 덧없는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 .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본분을 위해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병정들이 되는 것입니다"<sup>30)</sup> 라고 청중에게 연설하였다. 순서 중에 칼빈은 그가 작성한 학원에 관한 법령과 교칙을 낭독하였다.<sup>31)</sup>

그 아카데미는 교회의 통제를 받았다. 각 교사는 엄격한 교회규율의 규제를 받았으며 각자 성직자들에 의해 임명되었다. 교사들은 신앙고백에 서명해야 했고 그들은 자기 학생들의 신앙과 생활을 면밀히 감독했다.<sup>32)</sup> 주요 교직원으로 베자(Theodorus Beza)는 총장, 안트완 셰발리에(Chevalier)는 히브리어 교수, 프랑소와 베로(Francois Bereaud)는 희랍어 교수, 그리고 장 타강(Jean Tagant)은 교양과목 교수였다.<sup>33)</sup>

제네바 아카데미는 Schola privata와 Schola publica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자는 대학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으로부터 16세까지를 위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등 7개 교과과정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대학교에 해당되는데 신학, 히브리어, 헬라 시와 철학, 변증법과 수사학, 물리학, 수학 등의 교과과정을 설치하였다. 의학 강의도 몇 개 있었고, 후에는 시민법 강의도 있었다.<sup>34)</sup> 이 아카데미의 설립 목적에 대해 칼빈은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강조

30) P. F. Geisendorf, Theodore de Beza(Geneva: Labor and Fides, 1949), p.107.  
 31) cf. W. S.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at Geneva," The Westminster Journal of Theology 18:1-33.  
 32) Elmer L. Towns, op.cit., p.253.  
 33) P. F. Geisendorf, pp.105ff.  
 34) Towns, op.cit., p.253 ; T. H. L. Parker, op.cit., p.253.

하였다.<sup>35)</sup> 학원 전체는 총장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그 임기는 2년이었고 학생들의 입학과 학위수여의 책임을 맡았다. 칼빈은 개인적으로 Schola publica를 감독했으며 그의 조수가 Schola privata의 교장이었다.<sup>36)</sup>

The Schola privata의 학생들은 여러 반으로 나뉘어졌는데, 제7반에서 시작하여 제 1반에서 끝났다. 분반은 명확했고 진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처음엔 알파벳을 익혔고, 그 다음엔 라틴어-프랑스어 알파벳을 가지고 음절들을 만들고, 그리고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읽고, 마지막으로 라틴어-프랑스어 요리문답으로 라틴어를 읽는 것을 배웠다. 2년 이내에 학생들은 버어질(Vergil)의 <부코릭스>(Bucolics)와 <에네이드>(Aeneid), 키케로의 <서한집>(Epistles), 오비드(Ovid)의 <슬픔에 관하여>(De Tristibus)와 <선에 관하여>(De Bonte), 씨저의 비평(Commentaries), 그리고 이소크라테스(Isocrates)의 연설들을 공부했다. 역사는 라틴어로 배웠고, 키케로의 연설들은 변증법의 교재가 되었다. 학생들은 2년 내에 희랍어를 배우도록 되어 있었고, 그 뒤 세네카(Seneca), 크세노폰(Xenophon), 폴리비우스(Polybius), 헤로디안(Herodian),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그리고 호머(Homer)의 글,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들의 서신 몇 편을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그 학생들은 비록 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읽고 생각하고 진정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sup>37)</sup>

학사력은 5월 1일에 시작, 12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포도 수확기에 3주간의 휴가를 허용했다. 수업은 여름엔 오전 6시, 겨울엔 오전 7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났다. 아침 식사시간이 30분, 점심시간이 90분이었다. 그 학교는 학생들이 기도문들과 십계명을 외우고 훈계를 경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종결했다. 학년의 끝 무렵엔 학생들은 동일한 주제를 놓고 불어로 논문을 쓰고 다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원죄를 강력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학생들이 작문할 때는 교사들이 교실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총장이 그 논문들을 정정해 주었고 그것

35) Parker, op.cit, p.253.

36) Towns, op.cit., p.253.

37) Ibid., p.254.

들을 진급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각 반의 우수한 논문 두 편은 상을 받았다.<sup>38)</sup>

The Schola publica의 교과과정은 조직된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청강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1시간 짜리 27강좌가 매주 배풀어졌다.<sup>39)</sup> 토요일 오후마다 신학과 학생들은 1시간 동안 성직자들의 감독 아래 성경 구절을 해설했다. 매월 학생들은 처음엔 신학교수에게 제출되는 논문에서, 다음은 공개 석상에서 구두로 하나의 신학적 명제를 논술해야 했다.<sup>40)</sup>

교양과목의 교수는 자연과학과 수학을 매주 세 시간씩 가르쳤다. 칼빈은 자연을 하나님의 옷으로 믿었기 때문에, 또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부단히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를 교재로 하고 키케로를 예증으로 삼아서 고등 수사학을 가르쳤다.<sup>41)</sup> 희랍어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플루타르크, 기독교철학자들, 그리고 희랍 시인들, 연설가들과 역사가들을 강의하였고, 신약은 신학교수에게 넘겨주었다. 칼빈과 베자는 격주로 교체하면서 월, 화, 수요일에 강의했다.<sup>42)</sup> 그들은 성경 강해에 치중했고, 칼빈의 주석서가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 이 강좌들로부터였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로,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 졌다는 점인데, 이는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사에 학급편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물려주었다.<sup>43)</sup> 다음으로 이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38) Ibid., pp.254-255.

39) C. Bourgeaud, Histoire de l'Universite de Geneve. 4vols. (Geneva: George and Cie, 1900-1934), pp.24-26을 Ibid., p.253에서 재인용.

40) W. S.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at Geneva," The Westminster Journal of Theology 18, pp.32-33을 Ibid., p.255에서 재인용.

41) L. Nixon, John Calvin's Teaching on Human Reason, trans. J. Allen (New York: Exposition, 1963), p.131을 Ibid., p.255에서 재인용.

42) 신 학 강좌가 셋, 히브리어 및 구약 강좌가 여덟, 윤리학 강좌가 셋, 희랍의 웅변가들 및 시인들에 관한 강좌가 다섯, 물리학 및 수학 강좌가 셋, 변증법 및 수사학에 관한 강좌가 다섯이 있었다(L. Nixon, op.cit.,p.131).

43) 손인수, 정재철, 「서양교육사」(서울: 교육출판사, 1967), p.88.

주목된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건립된 이래로 프랑스 전역과 전 유럽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개혁주의 교회의 역군으로 파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저자 중의 한 사람인 올레비아누스(Olevianus), 네델란드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생트 알데공드(Sainte Aldegonde)와 마르닉스(Marnix), 옥스퍼드 브둘레엔느 도서관을 설립한 토마스 보들리(Thomas Bodley), 제 2세대 칼빈주의 신학자인 랑베르 다노(Lambert Daneau), 스코트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John Knox) 등이 있다.<sup>44)</sup> 실로 이 아카데미는 세계의 개혁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를 길러 내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sup>45)</sup>

## V. 칼빈의 교육철학

칼빈에 따르면, 지식과 학식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혹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배워야 한다.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각이 명확하고 똑 바르고, 기교나 틀에 박힌 표현형식에 구애되지 않아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참지식은 자연, 교양학문, 또는 과학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sup>46)</sup>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철학, 과학, 그리고 웅변 등과 같은 것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가장 깊이 터득하는 것이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sup>47)</sup>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은 인간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이다.

칼빈의 교육철학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인간성에 관한 그의 견해이다. 인간성이란 철저히 타락하여 어떤 선행이나 선한 생각도 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인간의 육체, 관능적 욕구, 애정, 의지, 그리고 지능

44) Cudier, op.cit., p.190.

45)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Chicago: Moody Press,1961), p.164.

46) Towns, op.cit., pp.256-257.

47) Inst. 1:401.



등 인간의 모든 요소들이 사악하고 타락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칼빈은 인간을 속죄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았다. 내면으로부터 나타내 보일만한 선함이나 인간다움은 없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본성 속의 죄의 과멸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철저히 훈육을 받아야 한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sup>48)</sup>

칼빈은 주장하기를,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성경 속의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전2:9주석) 라고 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최고의' 지식도 필요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은 영원히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신앙고백에 서명하도록 주장했다.<sup>49)</sup> 참된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육에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경과 창조의 계시가 있어야 하며, 인간 편에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자기부정과 기도와 선행 등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희랍이나 로마의 작가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관해 많이 터득했었지만, 그러한 것이 성경 속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지식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칼빈은 주장했다. 그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진리와 건전한 교리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영원하신 증거에 의해 확증될 때야 비로소 인간들의 가슴에 신뢰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50)</sup>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 VI.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였던 칼빈의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목회를 통한 교육활동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48) Towns, op.cit., pp.257-258.

49) Ibid., p.258.

50) Ibid., pp.258-259.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노력하였음을 보게 된다. 신약과 구약을 조화롭게 강해하고 또 신앙교육서를 통해 기독교의 가르침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제네바 시민들은 초대 교부시대 이후로 유럽의 어느 회중도 받아보지 못했던 기독교 회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례에서 크게 권징을 통한 훈련, 시편의 찬송, 자녀의 교육문제 혼인 등 네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기 위하여 교회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고 신자의 훈련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또 <신앙고백서>를 통해 의회 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고백서를 지킬 것을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복음주의 신앙의 확립을 위한 교육과 훈계로서 지도하고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권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올바른 신앙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하여 시민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통일시킴으로써 정치적인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교회헌법>은 목회적 기능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각 직분에 관한 언급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와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신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교육시키기 위해 칼빈은 교회의 직분에 교사의 직분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헌법은 성직자의 양성과 건전한 시민교육을 위하여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서를 통해 요리문답을 교육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칼빈은 어린이 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던 교육실천가였음을 보게 된다.

저술을 통한 교육활동에 있어 대표적인 두 가지는 <기독교강요>와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서>이다. 물론 그의 성경강해도 중요하다. <기독교강요>는 개혁주의를 변호함과 아울러 기독교의 교리를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서>는 신앙을 설명하는 하나의 해설서이고 교리서로서 교육적 진술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신앙교육서의 서두에서 칼빈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점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명시하는 유쾌한 진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활동에 있어 그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

른 다양한 학교를 세웠다. 그는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고, 인문 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네바 학교는 성직자를 위한 준비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그의 학교 건립은 과연 훌륭한 교수진과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이 인간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임을 받아들였고, 교육에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와 성경과 창조의 계시가 있어야 하며, 인간편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자기부정과 기도와 선행 등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의 진정한 목표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그의 교육철학은 그의 교육활동의 출발과 과정이 되는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상황의 변화에 좌절하지 않고 일관되게 교육적인 목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혁사역을 감당하였다. 칼빈은 자신이 이해한 진정한 기독교 교리와 실천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에 행동적으로 힘쓴 위대한 인물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살펴해보면서 그 개혁의 작업에 있어 칼빈의 전례를 되새겨 교육적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 (\*)

